



간장해독제 - 한약 및 한방제제

저자 **황완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현대인에 있어서 간은 인체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장기이다. 음식물 과다 섭취와 편식으로 인한 영양 과잉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축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번에 게재한 술 이야기에서 알코올로 인한 지방간과 간부전 증상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다. 대부분 간질환은 경증인 경우 무증상이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피로, 무기력, 미열, 두통, 오심과 구토, 식욕부진, 황달을 호소하고 심하면 복수가 찬다. 주로 현대적 식물요법에서는 항지방간성물질, 필수아미노산, 간가수분해물, 비타민B 복합체 및 항산화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임상실험에서는 대부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식이요법이 중요하지만 단지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 소식, 저염식 등이 중요하며 이때 수용성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간의 해독제로서 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한방에서는 간장의 노폐물을 신장으로 제거하는 청열해서약과 황달을 치료하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이수삼습약이 단방 또는 복방으로 처방하여 사용되며 전술한 식물요법 제제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키워드

청열해서약, 이수삼습약, 보간환, 인진오령산, 인진호탕

간장해독제로서 청열해서약(靑熱解暑藥)이란?

한여름 뜨거운 열기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노폐물이 간에 축적이 되고 일시적으로 황달이 생기고 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간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여름에 간 기능이 더욱 악화가 되며 이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공급과 아울러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는 이뇨제와 충분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야 한다.

한방에서 청열해서약은 일사병 또는 열사병에 사용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 약학적으로 보면 구성한 약들이 대부분 충분한 아미노산, 이노 성분 그리고 수분을 제공함으로써 여름 무더위 다한(多汗)으로 인한 간의 노폐물축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 하엽

수련과 Nympaceae에 속하는 연 *Nelumbo nucifera*의 신선한 잎 또는 건조한 것을 말한다. 성미는 쓰고 평이다. 귀경은 간장과 비장이다. 주성분은 주성분으로 flavonoid와 약간의 alkaloid가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청열해서약으로 열사병과 일사병으로 인한 구갈과 두통에 사용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후할 때 차로써 사용하며 같은 청열해서약인 백편두 및 동과피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량은 1일 15-30g을 2회 또는 3회 나누어 우려내어 차로써 복용한다. 복방으로 하엽전(荷葉煎)으로 신선하엽 12g, 향유 9g, 백편두 6g, 동과피 6g을 2-3회로 나누어 물로 끓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하엽



수박

1.2 서과(西瓜, 수박)

박과 Cucurbitaceae에 속하는 수박 *Citrullus vulgaris*의 신선한 과실을 말한다. 성미는 달고 담담하며 귀경은 심장이다. 성분은 대부분이 수분이며 당과 유기산 및 카르테노이드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청열해서약으로 지갈이수(止渴利水) 작용이 강하여 소변이 진하거나 노량이 적거나 목이 마르고 하품이 나는 여름의 일사 또는 열사병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주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사용방법은 적량을 분쇄하여 여과한 후 1-2컵을 1일 2-3회 복용한다. 복방으로 사즙음(四汁飲)이라하여 수박즙, 복숭아즙, 선지황즙 및 사탕수수즙 등 동량을 혼합하여 2-3 차컵을 식전 복용한다.

간장해독제로서 이수삼습약(利水滲濕藥)이란?

이수삼습약은 좁은 의미로 보면 체내에 있는 수분을 땀구멍 또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약이다. 하지만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신성 이뇨제, 소염성 이뇨제, 배뇨통 등을 수반하는 요도염이 있으며 특히 여기에는 급만성의 간 기능장애 및 황달 등을 치료하는 인진호 및 옥미수 등이 있다.

2.1 인진호(茵陳蒿)

국화과 Compositae에 속하는 사철쭉 *Artemisia capillaris* 및 더위지기 *A. iwayomogi*의 지상부를 건조한 것을 말한다. 성미는 쓰고 평이하며 귀경은 간장과 비장으로 한다. 성분은 주성분으로 정유와 coumarin 성분 그리고 flavono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청열이습(淸熱利濕) 및 퇴황달(退黃疸) 작용이 있어 황달의 주약으로 사용하며 복방으로 인진호탕 및 인진오령산에 사용된다. 단방으로 15-20g 정도를 2-3회 나누어 끓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2.2 옥미수(玉米鬚)

벼과 Gramineae에 속하는 옥수수 *Zea mays*의 암술대와 암술머리이다. 성미는 달고 평이하며 귀경은 간장과 신장이다. 성분은 다량의 아미노산과 flavonoid 및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약리작용은 이수통림약으로서 간염, 담도결석, 요로결석 및 만성신염에 사용한다. 단방제로서 9-12g을 끓는 물로 우려내어 1일 2-3회 나누어 식전 복용한다. 현재 많은 음료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인진호(사철쭉)

옥미수(옥수수)

한방제제

3.1 보간환(補肝丸)

보간환은 간장질환용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한방제제이다.

- **처방구성:** 방약합편에 수재된 처방으로 당귀, 천궁, 백작약 및 숙지황 등 각 5g 강활, 방풍 각 4g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건강의 경우 zingerol은 혈관운동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당귀는 적혈구의 생성 및 혈관 확장작용 등이 있다. 이 처방은 주로 간허증으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안 들리며 놀라기를 잘하는 증세에 정평이 나 있는 처방이다.
- **목표:** 조혈작용이 강하고 간의 저장 혈액을 늘려 물질대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눈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간 기능 저하, 빈혈 등 얼굴색이 창백하고 눈이 피로하고 피로 권태를 느끼는 증세에 사용한다.
- **적용:** 간의 해독능력이나 혈액 부족으로 간의 생리 대사가 떨어지고 눈이 피로하거나 육체적인 피로 등이 나타나는 증세이다.
- **부작용, 주의사항:** 소화 기능이 약하고 설사 경향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복용방법:** 제제가 원방의 경우 환이므로 만들기 어려우므로 시판되는 제제를 복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2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

인진오령산은 간장질환용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이다.

- **처방구성:** 금궤요약에 수재된 처방으로 제제의 허가는 복령 1.5g, 백출 1.5g, 택사 2g, 계지 1g, 인진호 1.33g 및 저령 1.5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처방은 주로 목이 마르고 소변량이 적고 구토, 두드러기, 구역에 사용한다. 오령산에 인진호가 합쳐진 처방으로 인진오령산은 대변이 묽은 황달에 인진호탕은 변비가 있는 황달에 사용한다.
- **목표:** 간과 담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소화기관 및 조직에 정체된 수분을 배출시키며 황달을 없애는 것이다.

- **적용:** 습열황달의 경우 열보다 습이 많아 습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정체되고 조직으로 스며든 황달이거나 구토 설사가 있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제 증상에 사용한다.
- **복용방법:** 허가 처방을 1회 분량으로 하여 1일 2-3회 분량을 추출하여 아침, 저녁 식전과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시판되는 제제는 복용방법에 따른다.

3.3 인진호탕(茵陳蒿湯)

인진호탕은 해독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이다.

- 처방구성:** 상한론에 수재되어 있는 처방으로 허가되어 있는 제제는 대황 0.67g, 치자 1.0g 및 인진호 2.0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처방 중 치자는 성분 중 crocin이 담즙 분비와 배설을 촉진하고 혈중 bilirubin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 목표:** 간과 담낭의 기능을 정상화하며 황달을 없애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여 열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적용:** 인진호탕은 열이 습보다 중한 증상으로 담즙이 피부 진피층으로 넘쳐 황달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한다.
- 복용방법:** 허가 처방을 1회 분량으로 하여 1일 2-3회 분량을 추출하여 식전에 복용하거나 시판되는 제제의 경우 복용방법에 따른다.

약사 Point

1. 한방에서는 간장의 노폐물을 신장으로 제거하는 청열해서약과 황달을 치료하거나 이뇨작용이 있는 이수삼습약을 단방으로 또는 복방으로 처방하여 사용하며 전술한 식물요법 제제와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하엽은 현재 기호 음료 차로서 개발되어 있어 구입하기가 쉬우며 1일 15-30g을 2회 또는 3회 나누어 우려내어 복용하는 것이 좋다. 복방으로 하엽전(荷葉煎)으로 신선한 하엽 12g, 향유 9g, 백편두 6g, 동과피 6g을 2-3회로 나누어 물로 끓여서 식전에 복용한다.
3. 수박은 여름에 주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적량을 믹서기에 분쇄하여 여과한 후 1-2컵을 1일 2-3회 복용한다. 복방으로 사즙음(四汁飲)이라 하여 수박즙, 복숭아즙, 선지황즙 및 사탕수수즙 등 동량을 혼합하여 2-3 차집을 식전 복용한다.
4. 인진호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명이종 또는 채집 부위 및 시기가 다르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황달의 주약으로 단방으로 15-20g 정도를 2-3회 나누어 끓여서 복용한다.
5. 옥미수를 원료로 하는 건강음료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으나 함량 미달로 효과는 적으므로 단방제로서 9-12g을 끓는 물로 우려내어 1일 2-3회 나누어 식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보간환은 간의 해독능력이나 혈액 부족으로 간의 생리 대사가 떨어지고 눈이 피로하거나 육체적인 피로 등이 나타나는 증세에 사용한다. 제제가 원칙적으로 환이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우므로 시판되는 제제를 것이 편리하다.
7. 인진오령산은 습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정체된 황달이거나 구토 설사가 있거나 소변이 잘 안나오는 증상에 사용한다. 허가 처방을 1회 분량으로 하여 1일 2-3회 분량을 추출하여 아침, 저녁 식전과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시판되는 제제는 복용방법에 따른다.
8. 인진호탕은 열이 습보다 중한 증상으로 담즙이 피부 진피층으로 넘쳐 황달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한다. 허가 처방을 1회 분량으로 하여 1일 2-3회 분량을 추출하여 아침저녁 식전과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시판되는 제제의 경우 복용방법에 따른다.

참고문헌

- 일본생약학회감수, 현대의료에서의 한방약, 남강당(2008)
- 한약제제학편집위원회, 한약제제학, 신일북스(2015)
- Mizushima T., 현대의학에서의 한방제제 사용방법, Sanwa서점(2006)
- 육창수 등, 아시아본초학, 계축문화사(1998)